만경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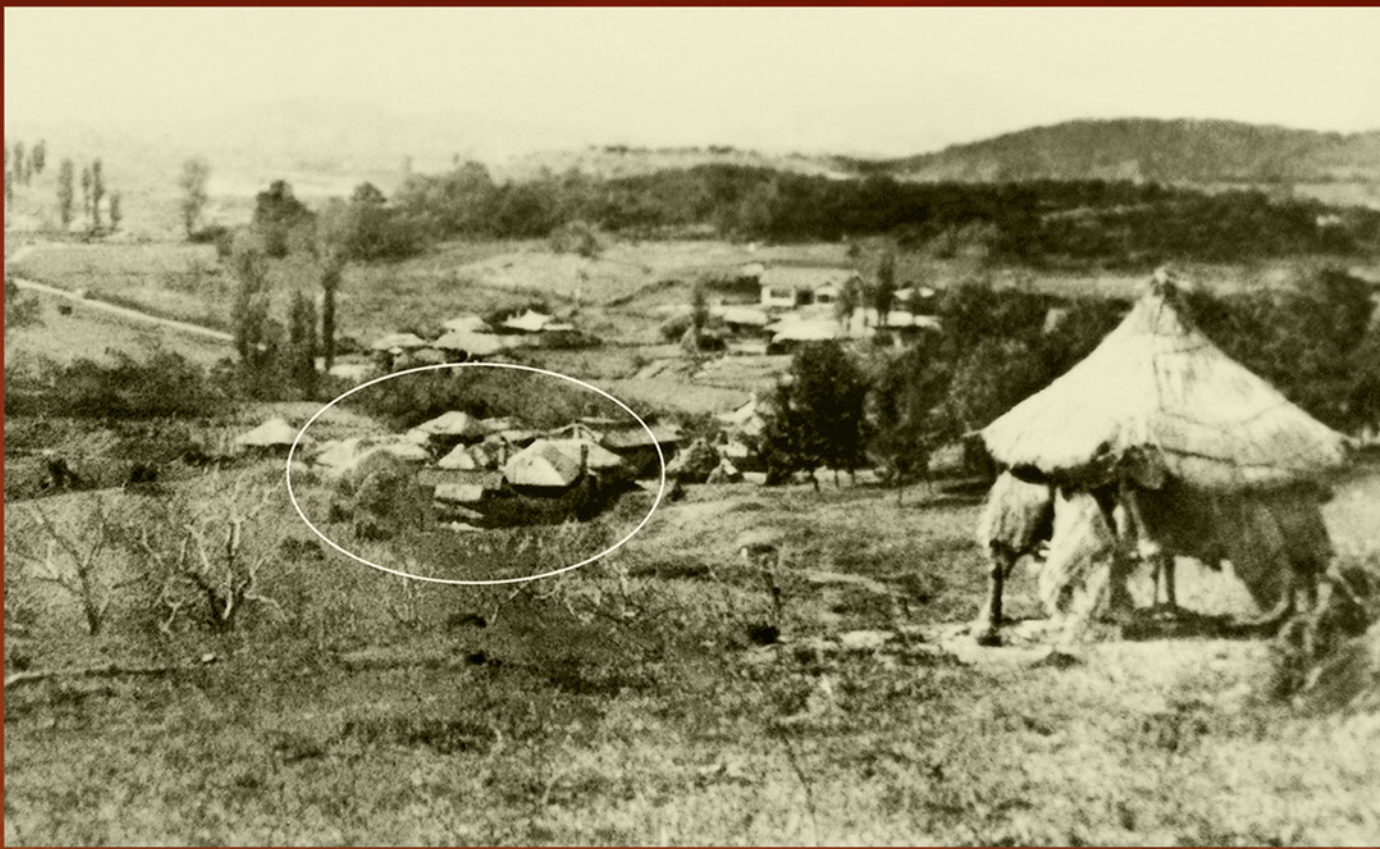
예로부터 만경대는 평양8경과 함께 명승지로 이름높은 고장이다.

만경대 두리에 있는 높고 낮은 봉우리들 가운데서 제일 높은 봉우리를 만경봉이라 부른다. 이 봉우리에 올라서면 일만가지 경치를 한눈에 바라볼수 있다 하여 그이름을 만경봉이라 지었고 그 기슭에 아늑히 들어앉은 마을도 만경대라고 불러왔다.

만경대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시여 어린시절을 보내시고 일가분들이 대대로 살아온 만경대고향집과 수령님께서 어린시절 몸과 마음을 단련하시던 썰매바위, 군함바위, 씨름터 등이 보존되여있다.

만경대로는 조선인민과 세계진보적인민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와 혁명적가정에 대하여 더 잘 알기 위하여 수많이 찾아오고있다. 만경대를 찾는 외국의 벗들은 한결같이 《만경대는 위대한 태양이 솟아오른 곳》, 《만경대는 사람들을 참다운 혁명가, 불굴의 투사로 키우는 혁명의 학교》라고 높이 칭송하고있다.

만 경 대

주체1(1912)년 4월 1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만경대고향집

해방전의 만경대

해방전 만경대는 20여호의 농가가 있는 자그마한 농촌마을이였다.

평양성에서 농사를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증조할아버님이신 김응우선생님께서는 생활이 너무도 어려워 지주의 묘지를 봐주기로 하고 산당집을 한채 얻어 1860년대에 만경대로 이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14(1925)년에 나라찾을 큰 뜻을 품으시고 고향 만경대를 떠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4(1945)년 8월 15일 조선을 해방하시고 20년만에 고향 만경대를 찾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4(1945)년 10월 14일 조국인민들앞에서 개선연설을 하신 그날 20년만에 고향 만경대를 찾으시였다.

일가분들 모두가 조선독립을 위해 고향집사립문을 나섰지만 조국을 해방하고 돌아오신분은 수령님 한분뿐이시였다.

사립문밖까지 달려나와 수령님의 품에 안긴 할머님께서는《아버지, 어머니는 어데다 두고 이렇게 혼자 왔느냐? …같이 오면 못쓴다더냐!》라고 하시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였다.

아래방

벽시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내가 만경대에서 어린시절을 보낼 때 우리 할머니는 늘 집에 시계가 없는것을 한탄하였다. 할머니는 물욕이 없는분이였지만 남의 집에 걸려있는 벽시계만은 몹시 부러워하였다. 우리 이웃에 벽시계가 있는 집이 한집 있었다.

할머니가 그 집 벽시계를 부러워하기 시작한것은 우리 아버지가 숭실중학교를 다닐 때부터였다고 한다. 집에 시계가 없었으므로 할머니는 매번 쪽잠을 주무시다가 첫새벽에 일어나 어림짐작으로 시간을 가늠하고는 서둘러 조반을 짓군하였다. 만경대에서 숭실중학교까지 30리길이니 조반을 일찍 짓지 않으면 지각을 할수 있었다.

어떤 날은 한밤중에 밥을 지어놓고도 등교시간이 되였는지 안되였는지 알수 없어 몇시간씩 잠을 못자고 부뚜막에서 동창만 바라볼 때도 있었다. 그런 날이면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뒤집에 가서 몇시나 되였는지 알아보구 오렴.> 하고 분부하였다.

어머니는 뒤집에 가서도 주인을 깨우기 미안하여 뜨락에 들어가지 못하고 울타리밖에 쪼그리고앉아 시계종이 땡땡소리를 낼 때까지 기다리군 하였다. 그러다가 시계종이 울리면 집에 돌아와 할머니에게 시간을 알려드리군하였다.

내가 팔도구에서 살다가 고향에 돌아오니 삼촌어머니가 우리 아버지의 안부를 물으면서 이런 사연을 이야기하였다. 큰 아버지가 먼길을 통학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였는데 성주는 칠골외가에 가있게 된다니 학교가 가까와서 좋겠다고 하였다.

우리 집에서는 해방될 때까지 할머니가 그렇게도 부러워하던 벽시계를 끝내 사다 걸지 못하였다.》라고 회고하시였다.

아래방

웃 방

부 엌

일가분들께서 리용하시던 농기구들과 살림도구들

헛 간

쭈그러진 독

쭈그러진 독은 1874년에 위대한 수령님의 증조할머님께서 생활이 너무도 어려우시여 남들은 쳐다보지도 사가지도 않는것을 제일 눅은 값을 주고 사오시였다.

증조할머님께서는 독을 사올 때 남들은 웃었지만 자신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렀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이 독옆에 보기 좋은 독을 마련해놓고 이 가슴아픈 사연을 옛말하면서 살아갈 날이 꼭 올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박 우 물

소나무와 들메나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린시절에 무지개를 잡으시려고 이 소나무와 들메나무에 오르군 하시였다.

썰매바위와 군함바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린시절에 썰매바위에서 동무들과 함께 미끄럼을 타시며 몸과 마음을 단련하시고 군함바위에서 군사놀이를 하시면서 슬기와 용맹을 키워나가시였다.

썰매바위

군함바위

씨름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씨름터에서 동무들과 씨름을 하시며 몸을 단련하시고 지혜를 키우시였다.

씨름터

샘물터와 학습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버님과 함께 샘물터에 자주 오시여 물도 마시고 랭수마찰도 하시면서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시였으며 학습터에서 책을 읽으시며 혁명의 큰뜻을 키우시였다.

샘물터

학습터

낚시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창덕학교시절에 만경대에 오시면 낚시터에서 청소년학생들과 인민들이 옳은 길로 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낚시터

만경대로는 한해에도 수많은 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 외국의 벗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있다.

편집, 글: 김국철
사진: 변찬우, 공유일, 위동명

만 경 대

낸곳: 외국문출판사
발행: 주체110(2021)년 10월

ㄱ-218163